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에필로그)		
에필로그 (1)			
<p>일정한 기계음.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 이따금씩 슬리퍼 끄는 소리가 느껴졌다. 거기다 일정한 시간만 되면 누군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았다. 매끄럽게 여닫히는 문소리에 아래 틈에 달린 자그마한 바퀴의 생김새가 떠올랐다. 알 수 없었다.</p> <p>현실감각을 잃어버린 뇌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에만 집요하게 집중했다. 청각이 깨어난 후에는 후각세포가 무언가를 감지했다.</p> <p>그건 그도 잘 아는 냄새였다.</p> <p>‘소독약 냄새.’</p> <p>분명 총을 맞은 후 정신을 났던 것 같은데. 아직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가슴을 꿰뚫리고도 살아남다니, 역시 인간병기다웠다.</p> <p>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소독약이 있었던가?</p> <p>이준은 손가락을 움직여보았다. 시지에서 느껴지는 이물감에 눈썹이 저절로 꿈틀거렸다. 손가락을 잘린 기억은 없는데 말이다.</p> <p>눈을 떠보려 안간힘을 써봤지만 신체의 반응속도는 뇌를 따라볼지 못하는 듯했다.</p> <p>‘눈을 떠. 눈부터 떠보자.’</p> <p>이준은 쿠엔틴 티라노 감독의 영화 ‘킬 빌리’가 떠올랐다. 왜 하필 지금 그 장면이 생각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배우가 감각을 되찾기 위해 암시를 걸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신경을 집중했다.</p> <p>‘자, 눈 떠봐. 할 수 있어. 오른쪽 눈부터 떠보자.’</p> <p>오오, 잘한다. 이준의 오른쪽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눈이 부실정도로 흰 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굳어있던 잔 근육이 서서히 가동을 시작했다.</p> <p>이윽고 왼쪽 눈도 기지개를 켜 준비를 했다. 안연고를 발라놓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번져보였지만,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쯤은 쉬이 알 수 있었다.</p>			

‘역시, 병원이네.’

보글대는 소리는 가슴기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손가락도 멀쩡했다. 방금 전 이물감의 원인은 산소포화도 측정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판판했던 손등에는 링거 주삿바늘을 고정하기 위한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주삿바늘이 버젓이 꽂혀있는 장면에도 이준은 대수롭지 않았다. 그가 깨어난 것을 기계도 감지했는지, 삐빅 삐빅 소리도 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았다.

“어? 환자분? 깨어났어요?”

언제 온 건지,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준은 그저 멀거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젠 뭐가 진짜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이곳에서 깨어난 건지, 조선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곧이어 담당의가 왔다. 그는 이준의 동공을 비춰보고 바이탈이 어찌고저찌고 떠들어가며 상태를 체크했다.

“보호자는?”

보호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준의 대답을 보지 못하고 저들끼리 의학용어를 주고받기 바빴다.

이준이 알아들은 것은 외상성 뇌손상뿐이었다. 개남의 화법을 쓰자면, 한마디로 대가리가 깨졌다는 소리였다.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보호자가 오고 있다는 소리에 이준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그 망할 친척들이 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왜? 기분이 더럽다 못해 언짢았다. 차라리 꿈이기를 바랐다. 아주 기분 나쁜, 더러운 꿈.

“없어요. 그런 거.”

이준은 적잖이 놀랐다. 분명 말을 내뱉었는데 입안에서만 맴돌 수 있구나, 싶어 앞니로 혀를 살짝 물어보았다.

아픈데! 아팠다. 감각이 마비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준은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

저를 쓰레기 취급하던 무늬만 혈육을 맞닥뜨릴 바에는 계속 이렇게 있을 작정이었다.

막상 눈을 감고 보니 졸렸다. 이대로 잠들면 동학군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준은 차분히 들숨을 뱉으며 잠을 청했다.

한 십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급한 듯 거친 발소리가 울렸다.

“형! 형!”

아, 돌아왔다! 역시 꿈이었어! 그런데 저를 형이라 부를 말한 사람은 현중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살며시 눈을 뜬 이준은 목소리의 주인을 응시했다. 이준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현이...”

“괜찮아요!? 알아보시겠어요?”

“상현이...”

빌어먹을. 진짜 돌아왔잖아?

이 뇌라는 놈은 되찾은 의식과 더불어 잠든 감각을 서둘러 깨우는 것 같았다. 이젠 목소리도 제법 나오고 주변상황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준은 마른입술을 달싹이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상현은 그간 있었던 일을 비교적 상세히 말해주었다.

박물관이 준공되면서 마찰을 빚었던 건설업체 직원이 앙심을 품고 건물 폭파 때 쓰는 폭약을 빼돌려 박물관에 설치해 두었다고 했다.

“형이 그쪽으로 가자고 안했으면 저희, 다 죽었을 거예요.”

당시 이준이 이끌던 침투조와 EOD는 중앙 홀을 거쳐 동학관에 들어가 있었다.

다행이도 팀원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이 일어나 모두 목숨은 건졌다고.

“폭발 여파로 가운데 천장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파편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겁니다. 자, 여기요.”

상현은 폭탄을 설치했던 남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뉴스 기사를 휴대폰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헤드라인에는 '경찰특공대 조장의 기지로 팀원 전원 생존'이라는 글이 딱하니 박혀있었다.

“아마 회복되시고 나면 큰 상을 받지 않을까요? 벌써 경위라니, 대단해요, 형! 지금 다른 팀원들도 서로 병문안 오겠다고 난리예요.”

예전의 이준이라면 이 커다란 떡밥을 만족스레 물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런 허울뿐인 명예니, 계급이니 아무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준은 상현에게 턱짓을 보내며 물었다.

“넌 괜찮냐? 안 다쳤어?”

답지 않게 다정스런 질문에 상현은 약간 놀란 눈치였다.

“저는 괜찮아요. 형이... 크게 다치셔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머리를 다쳤다더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았다. 상현은 의심에 미심쩍음을 섞은 표정으로 이준의 안색을 살폈다.

이준은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해서 왈칵 울음이 날 것 같았다.

대가리는 괜찮으나며 잔뜩 찌푸리던 봉 형. 다쳤을 때는 된장을 바르는 게 최고라며 냄새나는 된장을 움푹 떠서 머리에 칠하려던 개남 아재. 무심한 표정으로 탕약에 쓸 약재를 톱, 던지던 화중 형님.

꿈이라기엔 너무나 선명했고, 환상이라기엔 너무나 아팠다.

이준은 꿈, 소리를 내며 버석한 음성을 내뿜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그만 가봐.”

상현은 펄쩍거리며 말대꾸를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번 달까지는 병가 냈어요. e-사람(경찰관복무시스템)에 진단서도 다 떼 붙였으니 걱정 마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현은 고집이 켜졌다. 이준에게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부터 그는 마음을 달리 먹은 것 같았다. 어쩐지 늘 심드렁한 모습에 토르에게만 정을 주더라니. 그 일련의 상황들이 자연스레 이해가 갔다.

“네 맘대로 해.”

이준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 숨을 길게 뱉어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머리통이 깨질 운명인 모양이었다. 심지어 저쪽에서는 총까지 맞지 않았는가.

“말거만 주세요, 형!”

상현은 이준에게 더 이상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준이 몸을 씻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식사를 챙겼으며, 노트북을 가져오는 등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었다. 그다지 수다스런 타입은 아니었지만 적재적소에서 손길을 보태주었다.

며칠 뒤 일반실로 옮긴 이준은 상현의 노트북을 펼치고 검색창을 켜다. 타이핑을 치는 손가락에 유독 힘이 실렸다.

“동학...”

동학농민까지 쳤을 뿐인데도 연관 검색어가 10개는 더 달려있었다. 이준은 그 중에서 ‘동학농민혁명’ 카테고리をクリック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푸른 검색창이 하얗게 바뀌었다.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무장에서 1차 기병. 그 후 백산에서 호남창의소 설치. 황토현 전투를 거쳐 황룡촌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전주성 점령」

이준은 떨리는 눈으로 사건의 개요 파트를 읽어 내렸다.

“허! 미친...”

이준은 이맛살을 잔뜩 구기며 스크롤을 내렸다.

한 페이지도 되지 않는 축약 본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기는 아는 건가? 저 한 줄짜리 사건 속에 농민들의 피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번져있는지 아느냐 말이다!

이러니까 몰랐던 거다. 이렇게 묻어가는 역사로 남겨두니 역사드라마 팬인 저도 모를 수밖에.

이준의 마우스 휠이 또르륵 또르륵 소리를 내며 다음 페이지를 끌어당겼다.

“청일전쟁... 폐정개혁을 합의하였으나, 농민군 재봉기... 항일전선 구축 촉구...
우금치에서 전...봉준 부대 일본군과 관군에 패배... 일본군?!”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준의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쿵댔다. 그 다음은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했다. 12월에 김개남과 전봉준, 손화중이 차례로 체포되었다는 글이
끝이었다.

천천히 내려오는 화면 속에는 체포당시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봉준의 모습이
보였다.

“봉 형... 어쩌다 이렇게...”

이준은 욕지기가 올라와 가슴께를 부여잡았다. 봉준이 얼마나 고되게 지냈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만큼 야위고 거칠어진 모습이었다.

이준은 나머지 사람들의 최후를 차마 클릭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트북을 덮어버렸다.

‘결국, 거사는 실패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이준은 확신 할 수 없었다. 일본군까지
합세한 관군을 그 농민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는가.

이준은 그들의 발자취가 너무나 가없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를 걱정한
상현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도무지 마음 줄이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현은 멍하니 넋이 빠진 이준을 살뜰히 보살폈다.

“형! 이 집 전복죽 대박이에요! 먹어봐요.”

모든 게 무미건조한 이준이었지만, 주면 주는 대로 밥을 먹고 때로는 병문안을
받았으며 잘 때가 되면 잠을 잤다.

기계처럼 보내는 병원생활도 어느덧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다.

“형! 퇴원 수속 밟고 올게요. 여기, 외투요. 아참! 주머니에 형 물건도 넣어뒀어요.
소중한 물건 같아서 제가 일부러 챙겼습니다. 다녀올게요!”

이준은 병상 머리맡에 놓인 검정색 외투를 무심히 집어 올렸다. 3월인데도 춥다며
호들갑을 떨어대는 상현의 등쌀에 어쩐지 웃음이 났다.

정말 고집이 대단한 녀석이었다.

“소중한 물건이랄 게 뭐가 있다고.”

외투 주머니에 불쑥 손을 집어넣은 이준은 그 자리에서 멈칫했다. 그의 동공이 벌어질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확장되었다.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매끄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반지.”

화중이 마지막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이준은 다급하게 상현이 나간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머릿골이 번개라도 맞은 듯 광광 울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상현! 상현아!”

1층 원무과로 향하던 엘리베이터 문이 약 5cm가량 남겨두고 다시 열렸다. 어안이 병병해진 상현은 후다닥 빠져나와 이준에게로 달려왔다.

“형?!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습니까?!”

이준은 제멋대로 널뛰는 호흡을 고르지도 못하고 쥐고 있던 반지를 내밀었다.

“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왜 나한테 있어?”

상현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병원에 실려 왔을 때 꼭 쥐고 계시던데요? 어찌나 악력이 강한지 남자 셋이 매달려서 겨우 빼냈다고요.”

“하...”

이준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스물여덟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